

“근본불교로 서구문화 족쇄 풀겠다”

네팔 '캄마타나' 45분짜리 동영상, 미국 언론 이목 붙잡아 출락 린포체 “서구 정신에 내재된 고(苦), 없애고 행복 추구”

45분짜리 동영상인 미국 언론의 이목을 붙잡았다.

〈어니언(The Onion)〉지는 지난 20일 “불교근본주의 그룹인 캄마타나(Kamma-thana)를 이끄는 출락(Tsuglag) 린포체의 메시지를 담은 45분짜리 동영상인 티베트 웹사이트에 포스팅 되면서 미국 언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이 동영상에서 출락 린포체는 서구 정신문화의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캄마타나가 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캄마타나는 1970년대 후반 네팔에서 설립된 불교단체로, 사성제 등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 이를 포교의 공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적인 대(對)사회 불교운동’을 전개해 왔다.

서구 대도시에서 “게릴라전”을 떠올리게 하는 방법론으로 활동을 전개한 캄마타나의 이력 중에는 미국과 영국의 심장부인 뉴욕 지하철과 트라팔가 광장에서 대규모 집단 법회나 큰 소리를 외치듯 진행되는 통성 법회를 병행해 서구인을 놀라게 한 일도 있다.

그러나 그 행보에 비해 ‘히말라야 모처

에 본부를 둔 다국적 조직’으로만 추정될 뿐, 캄마타나의 면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동영상은 ‘문화적 정신적 성전을 연상케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 외에도 캄마타나 리더의 모습과 그 육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언론의 관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번 동영상에서 “캄마타나는 서구 문화, 나아가 정신에 내재된 고(苦)의 모든 근본을 없애고 변화시키겠다는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전제한 출락 린포체는 “이는 서구 사회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연민, 자비의 씨앗을 심고, 짝을 키울 때까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억압하는 서구의 문화적 정서적 족쇄를 풀고, 개개인 모두가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락 린포체는 “불교 근본 수행인 명상으로 서구의 욕망과 불안을 다잡고, 이를 통해 고통과 분별이 없는 서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서구인들이 철저히 성찰하고, 사성제·팔정도 등 진정한 영적 해방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기의



출락 린포체. 급진적인 불교운동을 전개하며 서구의 이목을 잡은 캄마타나(Kammathana)의 지도자

심’이라는 혹독한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구 사회는 이미 명상에 집중하고 있고, 그 가치를 배우고 익히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어니언〉지는 “서구 사회에 대한 경교라기보다는 캄마타나 지도부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풀이

했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 랜드 비어스(Rand Beers, Homeland Security) 대변인은 “뉴욕 지하철 게릴라 법회”에서 경험했듯, 캄마타나의 활동은 대도시의 질서에 자칫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캄마타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종욱 편집위원

스님 vs 벤츠, 최후 승자는?

새 모델 A45 광고서 스님과 대결 벌이는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의 새 광고 컨셉은 ‘모두에게 매혹적인(fascination for all)’이다. 벤츠 때문에 좌선을 방해받은 스님이 합장하고 있다.

벤츠가 스님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

까. 발칙하면서도 재미난 질문을 던진 주인공은 바로 독일의 자동차 회사, 메르세데스 벤츠다.

벤츠사는 지난 3월 공개한 고성능 소형 자동차 A45 AMG의 광고에 스님들을 등장시켰다. 세속의 때를 벗겨내며 흔들림 없이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벤츠가 ‘어릴’ 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광고였다.

세계적으로 신앙에 가까운 정도로 절대적 신뢰를 얻고 있는 벤츠 앞에서 태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광고는 이런 자부심에서 나왔다. 지나가는 벤츠에 힐끗 눈길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이란 걸 생각하면 무리수는 아니다. A45의 매력에 스님들 또한 흔들림이 없었을까.

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섯명의 스님들은 뇌파측정장치를 달고 좌선중이다. 뇌파가 잠잠해지자 벤츠가 굉음을 내며 원을 그

리고 앉아있는 스님들 주변을 속도감있게 맴돈다. 모기에 가까운 벤츠의 몸놀림이 현란해지고 바닥에 고인 물은 스님들 얼굴 위로 튀기 시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뇌파가 큰 폭으로 움직인다. 참선이 방해 받고 있다는 증거다. 이를 본 큰 스님이 좌선중인 스님들에게 다가가 죽비로 경책한다. 어떤 장애에도 굴하지 말라는 호된 채찍이다. 결국 벤츠의 엔진은 멈췄다.

마음을 동요시키느냐 아니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느냐.

벤츠가 선승들에게 던진 도발적인 대결은 무승부로 끝났다. 벤츠는 스님들의 마음을 온전히 훔치지 못했고 스님들은 장애로 수행을 도와준데 대해 벤츠를 향해 합장했다.

광고를 기획한 벤츠측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속에서 각자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광고는 다년간 참선을 해온 스님들이 실제 실험에 참여하며 만들어졌다.

배현진 기자 inus@hyunbul.com

캄보디아 스님 40명...천연우림 지키려 전기 시위

신규 댐건설로 파괴되는 자연 보호하기 위해

40명의 캄보디아 스님들이 댐 개발 계획에 반대하며 밀림 25km를 걷는 평화 행군을 시작했다.

아렝 강에 수력발전댐을 지으려는 캄보디아 정부와 중국 구오디안 전력회사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6개월 전부터 수도 프놈펜에서 행군을 시작한 스님 일행은 최근 아렝 강이 있는 카르다뎀 숲 입구에서 프라라이 마을까지 걷는 중이다.

이번 일을 기획한 부트 분텐 스님은 “우리의 생명은 자연에서 비롯됐다. 자연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일부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며 “캄보디아에서 스님들은 정치적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시아에 남아있는 우림 중 규모가 큰 카르다뎀 숲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댐이 건설되면 호랑이, 코끼리 등 31종의 야생동물 서식지는 물론 멸종위기기인 삼악어 또한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댐이 위치한 천연우림인 카르다뎀 숲 또한 전체 면적(4013km²)의 20분의 1인 200km²를 잃어버리게 된다. 1500명의 수물민 또한 생긴다.

이 지역에 건설되는 댐은 총 네곳. 스님 일행은 그 중 환경훼손이 가장 크게 염려되는 아렝 벨리를 행군길로 삼았다. 오후불식을 철저히 지키며 약간의 물로 허기를 채우는 강행군 탓에 일부 노스님들은 탈진해서 쓰러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지역민들이 물고 오는 오토바이는 구급차 역할을 자처했다.

댐개발로 벌목이 성행하는 곳을 지날 때마다 스님들은 베어진 나무에 주황색 천을 두른다. 승복을 만드는 천이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수행이 오래된 나무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부처님의 가피가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천을 두르며 축원을 한다. 지역민들이 자연을 신성하게 보길 바라는 바람 또한 담겼다. 캄보디아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소리없는 움직임에, 스님 일행이 마을



캄보디아의 스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아렝 벨리를 지키기 위해 법복을 만드는 천을 나무에 두르며 자연을 위해 기도했다. (출처: 글로벌 메일, 루크 더글비)

을 지나가면 지역주민들이 평화의 행군에 동참하기도 한다.

일행 중 한명인 느낌 사오삼 칸 스님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 낙관적이다. “캄보디아에서 스님은 아직까지 힘이 있다. 잘못된 일이라면 정부에 계속 대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환경단체 ‘인터내셔널 리버(International River)’의 아메 트란렘은

“아렝강의 환경적, 사회적 비용은 댐 건설 비용인 3천억원을 능가한다”며 “구오디안 사는 이번 사업으로 많은 수해를 입는다. 캄보디아 정부가 비싼 가격으로 전력을 되 사주기로 했고, 재정위기가 닥칠 때는 금융구제 또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댐건설로 인한 환경 복구 비용은 온전히 캄보디아의 몫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배현진기자

중 법원, 티베트 스님 4년 6개월 실형 선고

‘티베트 분리 독립 언급했다’는 이유로 2년간 정치적 권리 박탈

〈티벳 포스트〉지는 21일 “쓰촨성 지방 정부는 탐드린(Tamdrin) 스님이 장래의 식 도중 티베트의 분리 독립을 시사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중급 인민 법원’은 지난달 29일 선고 공판을 통해 “티베트 분리 독립은 중앙 정부의 정책에 어긋나므로 스님에게 4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2년 동안 제한 정치적 권리도 박탈한다”고 밝혔다.

쓰촨성 지방 정부는 지난 4월 24일 ‘티베트 분리 독립 동조’ 혐의로 잠탕 창파 사원에서 탐드린 스님을 체포한데 이어 사원 곳곳에 공안을 배치, 사원 인파의 반응을 감시해 왔다.

잠탕 창파 사원은 쓰촨성을 대표하는 티베트 사원 중 하나로, 현재 약 2,000여 명의 스님들이 대중생활을 하고 있다.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탐드린 스님

한편 〈티벳 포스트〉지는 “이번 사건은 티베트 불교계의 역량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안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풀이하고, “이는 잠탕 창파 사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원 증축 불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탐드린 스님 재판’에 앞서 쓰촨성 지방 정부는 “잠탕 창파 사원의 건축 계획에 수정이 필요하고, 새로 지어질 부속 건물도 철거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기반방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기iban

나만의 완성세계 기iban

기iban

완전 신장과 만능,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기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기iban

수련할때까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기iban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항스님의 법어!

도자기 법어가 담긴 에코컵

series 1. 마음

series 2. 대장부

종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음 법어: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현불삼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